



SK텔레콤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LTE 상용화 선포식'을 열고 4G 이동통신 시대 개막을 알렸다. 모델들이 LTE 데이터 모델 단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4세대 LTE 시대 개막 ... SKT가 뚝다

〈통신통보통신: 4세대 통신망〉

오늘 상용화 서비스 스타트

SKT, 안테나 기지국 1772대 망 강점 800MHz 주파수 28년 서비스 노하우

LGU+는 빠른 데이터전송 속도 어필 단말기 확보 경쟁선 SKT가 한발 앞서

4세대(4G)이동통신 통신통보통신(LTE)을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30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과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7월1일부터 LTE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TE는 기존 3세대(3G) WCDMA(HSUPA)망 보다 다운로드는 5배, 업로드는 7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동영상, 네트워크 게임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 양사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쳐며 새로운 시장을 향한 불꽃 경쟁을 예고했다. SK텔레콤은 연말까지 30만명, 2015년까지 1000만명의 가

입자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유플러스의 목표는 내년까지 300만명, 2014년에는 1000만명 가입자 확보다.

● '충족한 네트워크' VS '주요 거점 서비스' LTE 서비스 경쟁의 첫 번째 화두는 커버리지다. SK텔레콤은 서울 전역에 안테나 기지국 1772대, 디지털 기지국 609대를 구축해 탄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수는 모자라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광주 등에서도 서비스를 한다고 맞붙을 냈다.

SK텔레콤은 "경쟁사보다 충직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했다. 차를타고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필요한 곳에서 LTE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연말에는 82개 도시에서 LTE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2013년 경 전국망 구축 완료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2012년 7월까지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28년의 노하우' VS '빠른 속도'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신경전도 치열했다.

SK텔레콤은 오랜 서비스 노하우를 강점으로 꼽았으며 LG유플러스는 경쟁사 대비 빠른 속도를 내세웠다.

SK텔레콤은 LTE가 서비스되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오랜 서비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1984년 아날로그 이동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뒤 28년 간 800MHz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과 운영 노하우를 심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수신과 발신 대역을 각각 10MHz씩 이용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최대 75Mbps다. SK텔레콤은 수신과 발신 대역을 각각 5MHz씩 사용한다. SK텔레콤은 "28년 노하우를 100% 활용해 차원이 다른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수·발신 대역이 5MHz면 충분한 속도가 나온다. 올 연말에는 수·발신 대역을 각각 10MHz씩 이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우리 서비스가 경쟁사 대비 데이터 전송속도가 2배 빠르다. 800MHz 주파수 대역은 그동안의 네트워크 열세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 단말 확보 및 요금 경쟁력 확보 단말 확보와 요금 경쟁력 확보도 관련 포인트다. 가입자확보에 가장 중요한 단말 확보 경

쟁에서는 SK텔레콤이 한 발 앞섰다. 7월1일 두 종의 데이터용 모델을 출시했으며 9월 경 첫 LTE 스마트폰을 내놓는다. 연말까지 총 5종의 스마트폰을 확보하고 태블릿PC도 2종 출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7월1일 데이터용 모델 2종을 출시했다. 10월부터는 스마트폰 2종을 출시한다. 태블릿PC를 포함해 연말까지 총 3~4종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LTE 스마트폰 요금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단 데이터 단말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LG유플러스가 미세하게나마 유리하다. LG유플러스는 월 기본료 3만원에 5GB, 5만 원에 10GB를 제공하는 2종의 요금제를 출시했고 초과 시 MB당 30원을 부과한다. SK텔레콤은 월 3만5000원에 5GB, 월 4만 9000원에 9GB를 제공하는 2종의 요금제를 선보였다. 기본 제공량 소진 시 1MB당 51.2원이 부과된다.

IT업계 관계자는 "LTE가 아직 서비스 초기로 어느 통신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보일지 선불리 전망하기 어렵다. 향후 망구축과 스마트폰 단말 및 요금 경쟁력 확보, 특화된 서비스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2011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 내일 태백서 스타트



2일부터 강원 태백시의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리는 2011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의 드라이버인 조성민 선수(왼쪽)와 레이킷 명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변영욱 동아일보기자 cut@donga.com

■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팀 조성민 & 레이킷 명

“멋진 경기·멋진 승부 동아의 힘 보여줄 것”

내일부터 이틀간 태백 레이싱파크서 팡파르 조성민 '동아'창단팀 멤버 영광...목표는 우승 레이킷 명 "멋진 경기로 한국팬들과 첫 인사"

"동아일보의 명성에 걸맞은 멋진 경기를 펼치겠다."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의 주인공 조성민(26) 선수와 마카오 국적의 레이킷 명(L.EI KIT MENG·44)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동아미디어그룹이 창단한 레이싱 팀. 두 선수는 2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리는 '2011 코리아스피드페스티벌(KSF)'에 참가한다.

1999년 인천 송도에서 발보리핀 카트대회 주니어클래스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모터스포츠계에 혜성같이 등장한 조성민은 "오랜 전통과 명성을 가진 동아일보가 창단한 레이싱 팀에서 뒀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멋진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과 서킷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태백레이싱파크를 찾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될 레이킷 명 선수는 백전노장이다. 1992년 홍콩투어링카 챔피언십 우승자로 차이나캘리 챔피언십, 아시안투어링카 시리즈 등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경험이 풍부하다. 이번 KSF를 위해 11세의 아들과 함께 입국한 그는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의 참여 제의를 받고 무척이나 기뻐했다"며 "한국 팬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 굉장히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사람은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공헌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조성민은 "우승하고 싶지만 좋은 경기를 통해 모터스포츠 팬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일 개막해 5개월여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KSF는 채널 A 동아일보 레이싱 팀이 참가하는 제네시스 쿠페(프르클래스) 레이스에 15대의 차량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총 64대의 차량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장승호 KSF 대회 조직위원장은 "국내 정상급 드라이버들이 총 출동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말 태백레이싱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은 모터스포츠의 진수를 느끼고, 다양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성준 동아일보 기자 always@donga.com

'엠스타'와 신나게 놀고, 명품파티 가자

CJ E&M 넷마블은 누리엔소프트가 개발한 댄스게임 '엠스타'의 공개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엠스타는 댄스게임 최초로 유명 온라인게임 제작엔진 '엔리얼3'로 만들어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한다. 화려한 3D 그래픽과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움직임, 획기적인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으로 테스트기간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기존의 아가자기한 댄

스게임 캐릭터와 달리 리얼한 캐릭터와 고급스럽고 세련된 다양한 패션 아이템도 강점이다.

넷마블은 서비스를 기념해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최고급 상품을 건 명품파티 초청 이벤트를 실시한다. 7월31일 자정까지 순위, 친구 수, 레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출석 수 등 미션 수행 점수를 합산해 100명의 여성이용자에게 명품 클럽파티 VI

친구 수·레벨 등 점수 합산 명품·클럽파티 초대장 제공

P 초청장을 제공한다. 명품파티에 초대받은 여성은 최대 2명의 친구와 입장할 수 있다.

엠스타 명품 클럽파티는 8월20일 흥대에서 진행된다. 초대받은 이용자들 모두에게는 샤넬 백, 루이비통 지갑, 구찌 지갑과 선글라스 등 최고급 명품에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화장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 다채로운 경품들을 건 이벤트도 진행한다.



클럽파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엠스타 홈페이지(mstar.netmarble.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근기자

아이폰용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뜬다

iOS 버전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

넥슨모바일은 인기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기사단'의 iOS 버전(사진)을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게임은 넥슨의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원작으로 개발된 것이다. 전자 캐릭터 소울 마스터와 마법사 플레이 워저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각 캐릭터를 선택해 두 가지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스킬과 월드맵, 각종 코스튬으로

게임의 재미를 더했으며 4종류의 미니 게임이 도입돼 볼륨이 커졌다. 시리즈 최초로 몬스터 라이딩을 구현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필드를 이동할 수 있으며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우편함 기능도 도입됐다.

메이플스토리 시그너스 기사단은 3개 언어(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출시되며 게임 카테고리 및 전 세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넥슨모바일은 향후 1대1 실시간 미니게임 대전 기능 및 페



이스북과 트위터 연동 기능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김명근기자

인기클리 베스트 3

자료: 네이버

연예	미친 몸매 장윤주, 섹시 카리스마 캐주얼로 변신! 마이티마우스 상주, 10일만에 10kg 감량 '후덕-복근' YG, 플레이보이 社 상표권 침해 시인·시정조치 발표
스포츠	전문가 4인, 여름야구 3강 긴급진단 박선규 차관 '승부조작 프로축구단 K리그서 방출' 투타 무너진 롯데, 총체적 난국에 빠지다
사회	연인과 '함께 죽자' 하다 자신만 도망명 구속 '김·경수사건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쏟아지는 토사속 母子 극적 탈출...아들, 어머니 구해
경제	가계빚 잡으려다...중기·서민만 잡을수도 "오픈프라이스 1년 만에 없앤다?" 업계 '당혹' GS칼텍스 "기름값 단계적 환원"
생활 문화	장마전선 활성화... 남부 국지성 호우 상추 폭풍 다이어트, 수영복 촬영 위해 고구마 주식으로! 맞선 남자가 들었던 최대 말말?

인기 동영상

칠레 화산에 UFO 출현?



편집 | 연도영 기자 ydo@donga.com 트위터@scd_002